

## 국어 영역

## 제 1 교시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로 독서는 독자가 간접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독자는 진로 발달 과정에 맞는 효과적인 진로 독서를 통해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 선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진로 발달 과정은 연령에 따라 청소년 이전의 환상기, 청소년 초기의 잠정기, 청소년 중기의 현실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환상기의 독자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없이 역할놀이를 통해 특정 직업에 대한 욕망을 표출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독자는 다양한 직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진로 독서를 해야 한다. 잠정기의 독자는 진로 선택에서 흥미, 능력, 적성 등 주관적 요인을 중시하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과 같은 현실적 요인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따라서 진로 독서를 할 때 주관적 요인을 바탕으로 책을 선택하고 토론이나 독후감 작성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현실적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탐색을 해야 한다. 현실기의 독자는 주관적 요인과 현실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타협하여 진로를 선택한다. 이 시기의 독자는 특정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고 진로 결정을 구체화하여 세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려 한다. 그러므로 자기 주도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단계적인 진로 독서를 진행하고,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인문, 사회, 과학 등의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진로 독서는 독자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각성에 의해 변화한다. 진로 독서에서의 성공 경험은 독서를 통해 진로 분야의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진로 탐색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대리 경험은 독서를 통해 책 속 인물의 성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기 기대를 갖는 것이다. 언어적 설득은 독자가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자신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의 말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이며, 상상 속에서 그 인물과 대화를 하며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리적 각성은 독자가 진로 선택의 준비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불안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독자가 진로 독서를 진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는 성공적인 진로 독서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1.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로 독서는 독자의 진로 선택과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 ② 진로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독서를 진행한다.
- ③ 진로 독서 시 독자의 연령은 고려 사항에서 제외한다.
- ④ 진로 독서를 통해 독자는 진로 세계를 직접 경험한다.
- ⑤ 진로 독서를 통해 직업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상기의 독자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로 독서를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잠정기의 독자는 자신의 흥미,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책을 선택해야 한다.
- ③ 잠정기의 독자는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 활동을 통해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 ④ 현실기의 독자는 특정 진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한다.
- ⑤ 현실기의 독자는 진로 독서를 할 때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

3. 다음은 학생의 진로 탐색 일기이다. 밑줄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년 ○월 ○일

나는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 그런데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래서 내일 ㉡ 모의 창업 체험단에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했다.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평소 내가 닳고 싶었던 성공한 기업가의 자서전을 읽어 보았다. 책을 읽으며 ㉢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의 말에 힘을 얻고, 무엇보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은 후 ㉣ 나도 그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 낼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

- ① ㉠: 진로와 관련된 학생의 생리적 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 자발적인 진로 탐색 과정에서 궁금증 해결로 연계 된 학생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의 말을 통해 학생이 언어적 설득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대리 경험으로 갖게 된, 성공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 자기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 성공적인 진로 독서의 결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유 무역 협정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협정을 체결한 권역 내 국가, 즉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역내국들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역내국과 역외국의 무역 구조가 변화되면서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무역 굴절 효과 등이 나타난다.

먼저, 무역 창출 효과는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면서 상호 간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역내국 간의 관세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역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역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면서 역내국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결국 역내국들은 수출을 통해 무역 이익이 증가하고, 수입을 통해 역내국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무역 전환 효과는 한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역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다. 이는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 낮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역내국의 관세 수입이 ㉡ 줄어 경제적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자유 무역 협정으로 얻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 굴절 효과는 역내국 간의 무역 특혜를 이용하여 역외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역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다. 이는 자유 무역 협정에서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에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나)

자유 무역 협정에서 원산지는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역내국은 이 기준에 ㉢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가 역내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역내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는 역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 등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역내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가공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품의 가공 공정의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상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충분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실질이 변형될 만큼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협정에서는 조립, 건조, 분쇄 등 상품의 실질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단순한 공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공정만으로 가공한 상품은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품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였다면,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검토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 나눌 수 있다. 완전 생산 기준은 상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 않고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의 경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실질 변형 기준에는 세번 변경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이 있다.

세번 변경 기준은 국제 품목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에 부여되는 품목 번호인 HS 코드를 활용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를 사용해 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면,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 상품으로 ㉤ 보고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가공 공정 기준은 섬유, 석유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가공하는 전체 공정 중, 협정에서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공정 이상을 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협정별로 산업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역내국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나)는 중심 화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나)는 중심 화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중심 화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각각의 효과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5. 밑줄의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②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정마다 동일하게 운용된다.
- ③ 역내국들이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④ 역내국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역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⑤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통해 역내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 다음은 밑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6~7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갑국은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다. 갑국-을국 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㉔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후 갑국은 국내에서 스타킹을 제조하기 위해 협정 체결 기간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 실(HS 5402.44)을 제직 공정으로 직물로 만들었으며, 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판덱스 실(HS 5402.31)로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국의 염료로 염색한 스타킹을 생산하였다. ㉕ 갑국은 생산한 스타킹에 대해 을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았다. (단, 세 국가는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며,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활동 1] 다음은 ㉔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㉔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갑국		을국		병국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염료	나일론 실
생산 비용	25	50	15	60	10
생산량 변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활동 2] 다음은 <갑-을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일부이다. ㉔를 고려하여 을국의 입장에서 스타킹의 원산지를 판정해 보자.

## 제1장 기본 원칙

1. 상품의 가공은 역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2. 상품은 건조, 분쇄, 조립의 공정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되지 않음.

## 제2장 품목별 원산지 기준

### 1. 품목 분류

품목	HS 코드	상품
섬유	HS 6115.21	스타킹

2. '섬유의 상품'은 제2장의 3과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원산지로 인정함.
3. 다른 HS 코드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 역내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

6. 밑글을 읽은 학생이 '활동 1'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국에서 나일론 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한 것은 갑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상품에 생산 요소를 집중했기 때문이겠군.
- ②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역내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 ③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자국에서 생산하던 염료를 역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겠군.
- ④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는 감소한 것은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갑국에 역내국 상품이 역외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겼기 때문이겠군.
- ⑤ 병국보다 을국의 나일론 실이 생산 비용이 높지만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갑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역내국과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

7. '활동 2'에 참여한 학생의 대답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타킹의 가공 공정이 갑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역내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②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
- ③ 스타킹은 역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군.
- ④ 스타킹과 나일론 실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므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 ⑤ 스타킹은 스판덱스 실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을 수행한 상품이므로 가공 공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8. (가)와 (나)를 참고하여 ㉕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여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역외국의 상품이 역내국으로 수입되어 역외국이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역외국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던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역내 원산지로 인정하면 관세 수입이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④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역외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거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 이익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문맥상 ㉔ ~ ㉖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저조(低調)한
- ② ㉕: 감소(減少)하여
- ③ ㉖: 의거(依據)하여
- ④ ㉔: 구분(區分)할
- ⑤ ㉖: 간주(看做)하고

[10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란 혈류의 속도와 방향 등의 정보를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기기로 초음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초음파는 주파수가 인간의 가청 범위 이상인 음파이다. 일반적으로 음파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매질을 통해 측정 대상에게 보낸 초음파의 송신 주파수와 대상에서 반사되어 돌아온 수신 주파수는 같은 값을 갖는다. 하지만 대상이 이동하면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가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과정은 크게 **송수신 단계**와 표시 단계로 구분된다. 송수신 단계에서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수신하는 장치인 탐촉자를 이용한다. 먼저 탐촉자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탐촉자를 인체 피부에 밀착하여 초음파를 피부로 입사시킨다. 이때 초음파를 인체 내부에 효과적으로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음향 저항과 도플러 각도를 고려해야 한다. 음향 저항은 초음파가 매질을 통과해서 전달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매질의 밀도에 비례한다. 초음파는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큰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더 많은 양이 반사된다. 인체 외부의 공기나 피부, 내부의 힘줄과 혈관 등의 연부 조직, 혈액도 모두 매질이다. 이들 중 공기와 피부 간 음향 저항 차이가 가장 크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피부에 젤을 바르는 것이다. 또한 도플러 각도는 탐촉자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피부에 입사될 때 혈류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로, 이 각도가 0°일 때 혈류 속도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측정에서는 도플러 각도가 0°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차 값이 적은 60° 미만의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피부에 입사된 초음파는 피부에서 일부가 반사되지만 대부분이 투과된 후 연부 조직을 거의 일정한 속도로 투과하여 혈액으로 들어간다.

이후 초음파는 혈액과는 다른 음향 저항을 가진 적혈구를 만나 산란된다. 산란은 반사되는 초음파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산란체의 크기가 작거나 주파수가 높을수록 산란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산란된 초음파 중 일부가 다시 연부 조직, 피부를 지나 탐촉자로 되돌아오는데 산란으로 인해 초음파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이를 증폭시킨다. 이때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는데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를 도플러 변위라고 한다. 도플러 변위는 적혈구가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적혈구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도플러 변위의 절댓값은 크며, 적혈구가 탐촉자에 가까워지는 방향일 때는 도플러 변위가 양(+)의 값을 갖고, 그 반대는 도플러 변위가 음(-)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도플러 변위를 통해 얻은 혈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는 탐촉자에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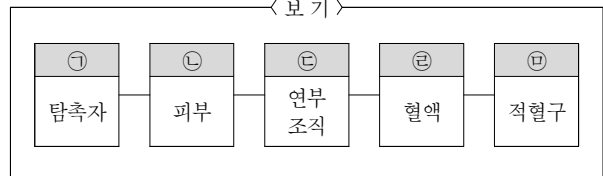
표시 단계에서는 탐촉자에 저장된 정보를 영상 장치의 화면에 색과 색의 밝기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영상 장치의 화면에 표시되는 혈류 정보의 색은 혈류가 탐촉자를 향하면 빨간색으로, 그 반대 방향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또한 혈류 속도가 빠르면 더 밝게 표시한다.

\* 주파수: 1초에 음파가 진동하는 횟수.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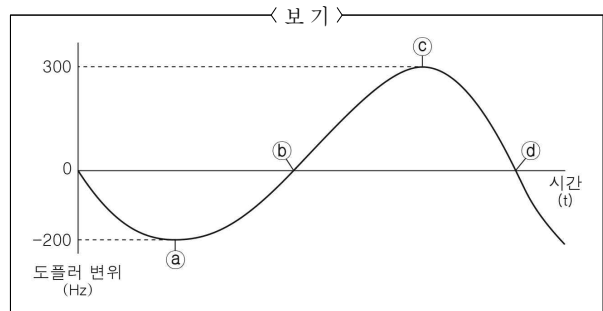
- ① 초음파를 전달하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음향 저항은 달라진다.
- ②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는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한다.
- ③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는 인간의 가청 범위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음파를 이용한다.
- ④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가 혈류 정보를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과정은 송수신 단계와 표시 단계로 구분된다.
- ⑤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에서는 도플러 변위를 통해 얻은 혈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영상 장치에 저장된다.

11. <보기>는 **송수신 단계**에서의 초음파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에 입사될 때, 혈류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60° 미만으로 유지해야 측정의 오차 값이 적겠군.
- ② ㉠에서 발생시킨 초음파의 강도는 ㉤에서 ㉢로 되돌아 나올 때보다 크겠군.
- ③ ㉢에 젤을 바르기 전보다 후에 ㉣으로 더 많은 초음파가 투과되었겠군.
- ④ ㉣에서는 ㉠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거의 일정한 속도로 투과하겠군.
- ⑤ ㉣을 투과한 초음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산란이 발생하겠군.

12. <보기>는 초음파 도플러 혈류계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혈류 속도보다 c의 혈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에서 b의 혈류 방향과 b에서 c의 혈류 방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b보다 c가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c와 d 사이에는 영상 장치의 화면에 혈류 정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겠군.
- ⑤ d보다 c에서 영상 장치의 화면에 혈류 정보의 색이 더 밝게 표시되었겠군.

13. ㉞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이 되었다.
- ② 수험 생활도 지나고 나니 그립다.
- ③ 바람이 창문 사이를 지나고 있다.
- ④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심결에 지나 버렸다.
- ⑤ 한 달 전에 산 우유의 소비 기한이 지났다.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은 인간이 사물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 철학을 비판하며, 인간과 사물, 나아가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는 객체 지향 존재론을 주장한다.

하먼은 어떤 점에서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고 보았을까?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인간 중심주의 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지적한다. 하먼 이전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인간이 주체로서 사물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인간이 사물을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거나,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면 그 사물의 본질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하먼은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이 사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바라볼 뿐 객체 그 자체로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하먼에 의하면 사물은 인간이 그 본질을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객체이다. 즉 객체는 다른 존재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물러나는’ 측면과 다른 존재에게 분석된 구성 요소 이상의 다른 무언가로 스스로 ‘드러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사물을 자신과 맺는 사물의 가치나 성격으로 일반화하려고 할 때 객체는 스스로 일반화되지 않고, 동시에 인간이 어떤 구성 요소로 사물을 분석하려고 할 때 그 구성 요소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결국 ㉠ 인간은 객체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그는 인간 역시 객체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 역시 ‘물러나는’ 측면과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되지 않고, 형태, 색깔, 크기 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객체에 대한 하먼의 입장은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인 것까지도 이어져,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른 객체에게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동등한 존재라는 주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객체가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객체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먼은 객체는 객체가 발산하는 정보나 담고 있는 특질인 성질을 가지며, 성질이 없는 객체나 객체가 없는 성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우리 바깥에 있는 객체의 존재와 성질을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객체는 우리가 결코 직접 접촉할 수 없기도 하며, 어떤 객체는 그 존재가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어도 그 객체의 성질은 결코 우리가 접촉할 수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객체와 성질의 관계에 따라 객체를 감각 객체와 실제 객체로, 성질을 감각 성질과 실제 성질로 구분한다.

먼저 감각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객체이고, 실제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객체이다. 이때 관찰자의 감각에는 인간의 오감만이 아니라 동물의 감각은 물론 측정 기기에 의한 측정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숲에 있는 나무를 어떤 한 관찰자가 보거나 관측했다면 이 관찰자에게 나무는 감각 객체이며, 어떤 관찰자도 이 나무를 보거나 관측하지 못했다면 이는 실재하지만 관찰되지 않은 실제 객체이다.

다음으로 객체는 감각 성질과 실제 성질을 가지는데, 감각 성질은 객체의 성질 가운데 관찰자의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즉 형태, 색깔, 크기 등과 같은 것이다. 반면 실제 성질은 그 객체가 발산하는 정보나 담고 있는 특질이지만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이다. 가령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한 나뭇잎의 푸른색은 감각 성질이며, 나뭇잎이 떨어지는 순간 이를 지각할 수 없는 지구 반대편의 관찰자에게 이 나뭇잎의 운동량은 실제 성질이다.

결국 하먼에 의하면 모든 객체는 드러나는 측면과 동시에 물러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찰자도 객체의 모든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즉 우리는 객체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먼은 그것이 인간 중심주의 철학에 의해 도구로 전락했던 모든 객체가 비로소 객체 그 자체로서 철학적 사유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을 이유라고 역설한다.

14. 객체 지향 존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인 것도 객체로 본다.
- ② 객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본다.
- ③ 객체 가운데 성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객체가 발산하는 정보나 담고 있는 특질을 성질이라고 본다.
- ⑤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객체를 그 자체로 다루지 못한다고 본다.

15. 윗글의 ‘하먼’과 ‘인간 중심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보기>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ㄱ.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미립자로 나눈 뒤 그 입자를 분석하면 만물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 ㄴ. 인간의 입장에서 생산되고 전파되던 과학 지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전동차와 같은 사물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 ㄷ.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ㄹ. 한 자루의 종이칼과 같은 사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물의 본질은 사람의 구상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

- ①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ㄱ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②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ㄴ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하먼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ㄷ에 동의하겠군.
- ④ 하먼은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ㄱ에 동의하겠군.
- ⑤ 하먼은 ㄹ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16.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하먼'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자료 1]

천왕성은 1781년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했다. 그는 처음 관측한 시점에는 천왕성이 단순히 혜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꾸준한 관측 결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 200년 뒤 관측선 보이저 2호는 천왕성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어 지구의 천문학자들에게 보냈다. 그 사진을 본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열은 초록색과 수많은 위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2]

그림 삽화가 A 씨는 출판사에서 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출판사 동료들은 A 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그의 실력과 그림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그림보다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퇴근 후에 영화 시나리오를 썼다. A 씨의 이러한 관심을 출판사 동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 ① [자료 1]에서 '허셜'이 관측한 '천왕성'은 감각 객체이겠군.  
 ② [자료 2]의 'A 씨'의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은 '출판사 동료들'에게 실재 성질이겠군.  
 ③ [자료 1]의 '천왕성'과 [자료 2]의 'A 씨'의 '영화 시나리오'는 각각 '보이저 2호'와 '출판사 동료들'에게 실재 객체이겠군.  
 ④ [자료 1]의 '천왕성'의 '열은 초록색'과 [자료 2]의 'A 씨'의 '빠른 손놀림'은 각각 '보이저 2호'와 '출판사 동료들'에게 감각 성질이겠군.  
 ⑤ [자료 1]의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과 [자료 2]에서 'A 씨'가 그린 '그림'은 각각 '지구의 천문학자들'과 '출판사 동료들'에게 감각 객체이겠군.

17. 윗글을 읽은 학생이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이 모든 객체에 의해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겠군.  
 ② 인간이 주체로서 객체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겠군.  
 ③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가 가진 가치와 성격을 일반화하여 왜곡하기 때문이겠군.  
 ④ 인간이 사물을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해 사물이 구성 요소로 환원되기 때문이겠군.  
 ⑤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물러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군.

- [18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오늘밤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이 아득한 바다 속 창망(蒼茫)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웠나니

생(生)은 갈사록 고달프고 나의 몸들 곳은 아무데도 없다 파도는 물러와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것은 마즈막 ㉠ 물결소리 먼 해일에 젖어 오는 그 목소리뿐

아픈 가슴을 어찌란 말이나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닌데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돌레를 찰랑이는 접시물 아아 바다여 너 또한 그렇거니

내 오늘 바다 속 한점 바위에 누워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 조지훈, 「묘망」 —

(나)

[A]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B]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날려진 바위와 우거진 수풀  
 너울대는 굴참나무잎 사이로  
 삼팽이 한 마리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벌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술한 나무와 짐승들

[C]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 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D] 질푸른 숲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 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B]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

(다)

갑오년 여름, 나는 달촌(達村)에서 예전에 살던 화오촌(花鵝村)의 집으로 이사했다. ㉔ 집이 좁고 낮아 드나들 때마다 머리를 부딪혔다. 이때는 날씨가 무더워 마치 뜨거운 화로에 들어간 것 같았다. 게다가 모기와 파리가 달라붙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웃에 사는 이우열(李友說)과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월송정 숲속에 죽봉(竹棚)을 만들었다. 기둥이 모두 넷인데 셋은 소나무에 걸치고 하나는 나무를 따로 세웠다. ㉕ 가로목도 넷이고 그 위에는 대나무를 깔아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사방에는 모두 대나무로 난간을 엮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왼쪽에 긴 다리를 만들어 나무로 지탱하고 잔디를 깔아 오르내리기 편하게 했다.

죽봉이 완성되자 이웃 노인들과 보리술을 마시며 축하했다. 그 때부터 매일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며 누워 잤다. 항상 술바람 소리가 서늘하여 시원한 기운이 뼈까지 스며들었다. 더위가 힘을 잃어 감히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모기와 파리가 멀리 가서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㉖ 마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몸이 통쾌하고 즐거웠다.

저 악양루(岳陽樓)와 황학루(黃鶴樓)는 크다면 크고 제운루(濟雲樓)와 낙성루(落星樓)는 높다면 높다. 그렇지만 그 화려한 건물과 환란한 단청은 여러 장인의 재주를 모은 것으로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다. 어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㉗ 어찌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납달리 시원한 내 죽봉과 같겠는가. 입안으로 중얼중얼하다가 마침내 배를 내놓고 난간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훌쩍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손 모아 절하고는 다가와 말했다.

“그대의 죽봉이 좋기는 하지만 그대의 안색이 쾌활하지 않은 듯하니 어째서인가. 아마도 진흙탕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땅에서 한 자 남짓만 올라와도 통쾌할 것이다.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의 죽봉이 더욱 통쾌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대의 죽봉이나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곳이나 진흙탕과 차이가 없다. 그대는 이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알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는 작은 것에 얽매어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속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 슬픈 일이다.

그대의 가슴속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빈 공간도 있다. 누각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창문을 활짝 열 수도 있다. 통쾌하기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눈에 담을 수 있고, 높기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사람과 마주 보고 인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장인이 재주를 부릴 필요도 없이 잠깐 사이에 만들 수 있으니, 올라가 바라보는 즐거움이 이 죽봉에 비할 바 아니다. 소박하고 시원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득실과 영욕, 희로애락 또한 빈 공간 속에서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하

지 않고 한갓 이곳에서 즐거워하는가.”

㉘ 나는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소나무 그들은 서늘하고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석양이 산에 내려 맑은 이슬이 옷을 적실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탄식했다.

“월송정의 신령이 내게 가르침을 내린 것이리라.”

마침내 기록하여 죽봉기로 삼는다.

- 이산해, 「죽봉기」 -

18.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조적인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목인 ‘묘망’은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는 뜻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로 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 양상을 깨닫는다.

- ①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다 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생은 갈사록 고달프고’ ‘몸돌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너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사념이 지닌 크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20.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의 계기가 드러난다.
- ② [B]에는 화자가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한 내용과 대비된다.
- ④ [D]에는 화자가 자신의 바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 ⑤ [E]에서 나타난 화자의 변화는 [A]에서의 화자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이다.
- ② ㉠은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의 각성을 방해하는 소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고,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추억을 환기하게 하는 소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다른 대상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이다.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사한 집의 특성과 날씨로 인해 매우 힘들었음을 나타낸다.
- ② ㉡: 죽봉이 자연물을 재료로 지어졌고 규모가 넉넉함을 드러낸다.
- ③ ㉢: 죽봉에서 느끼는 시원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 죽봉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⑤ ㉢: 노인과의 만남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은 본질적 특성에서 나아가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주체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공간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 ① (나)에서는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며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 자연적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산의 ‘어디서나’ ‘지저귀는’ ‘멧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에서,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죽봉이 통쾌한 줄만’ 아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진흙탕과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동일한 공간도 관점의 차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에서는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송정 숲속에 죽봉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새로운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서는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에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구체적 공간의 한계를, (다)에서는 ‘가슴속’의 ‘누각’에 오르면 ‘세상의 득실과 영욕’도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에서 관념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구는 내게 했던 말처럼, 그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마디로 그는 소명(召命)을 받은 자였다.

침대에 다시 누여놓은 현구를 숙영이와 원 목사에게 맡겨두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민 박사를 만나러 갔다.

우리가 긴 복도를 걸어가자, 현관 입구에서 전투경찰대원들과 두 노인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는 입씨름이었다. 밀짚모자 쓴 콧수염 기른 노인이 어머니를 알아보곤, 문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창길이 할아버지시구먼요, 하고 어머니가 알은체 절을 하며 반겼다. 현구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듯 외양을 보니 산동네 비산동 주민인 듯했다.

“㉠ 아, 글썄 박 선생 면회가 안 된다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구, 노인들 문병까지 왜 막습니까. 면회도 못할 만큼 박 선생이 그렇게 위독한가요?”

“이 사람들이 안 된다면 난들 어찌겠어요. 위독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현구는 위독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가세요.”

나는 어머니 팔을 끌었다. 구호가 끊긴 바깥으로 나서니 학생들은 피약별 아래, 겹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 가부좌 틀고 앉아 있었다. 침묵시위를 벌이는지 말없이 앉아 있는 그들의 땀에 젖은 모습이, 마치 선정(禪定)에 임한 고행하는 승려들 같았다.

“너들 중에 학생도 있는 것 같구나. 지성인이라 자부한다면 다른 환자들도 생각해달 게 아냐. 여기가 어디 시장바닥인가. 또한 현구 씨도 지금 몸 상태가 아주 나빠. ㉡ 직계가족 이외 일절 접견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엄명인데, 이렇게 고향까지 질러대면 그 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어? 만약 또 구호를 외쳤다면 모조리 연행할 테니 그리 알아!” 뚱뚱한 수사관이 흔쾌하곤 병동 안으로 걸음을 돌렸다.

[중략 줄거리] ‘나’는 현구의 병이 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현구가 임원해 있는 병동 앞에서 현구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구는 혼수상태에 빠진다.

“사모님, 갑시다. 어서 나서요! 병원 후문에 봉고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작업복 차림의 젊은이가 동수 엄마에게 외쳤다.

“애들아, 뭐냐? 어, 어디로 가자구?” 다칠세라 현구를 끌어안듯 팔을 벌려 보호하던 어머니가 어마지무해져 말을 더듬었다.

“어머님, 동수 아빠를 비산동 우리 방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요. 동수 아빠는 죄인도 아니고, 그러기에 여기에 갇혀 감시받는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어요!” 동수 엄마가 발통 달린 침대를 끌어내며 빠르게 말했다. 단속적으로 여린 숨을 내쉬는 현구를 보는 그네의 눈이 눈물로 빛났다.

“㉢ 그래, 그래야지. 네 말 맞다. 현구는 죄인이 아냐. 동수야, 우리가 앞장서자. 너와 내가 앞장서야 해!”

머느리 말에 어머니도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숙영으로부터 동수를 빼앗아 덩석 등에 업었다.

“할머니, 아빠 정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동수가 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 그래, 집으로 가는 거다. 이제는 네가 아빠가 되는 거다. 현구가 못다 한 일을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이제 이 할머니의 막내다!” 어머니가 신들린 듯 외쳤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 현구를 업고 남행길을 재촉하듯, 꼬부장한 좁은 등판에 김장독 같은 동수를 업고 앞으로 나서며 병실 문을 활짝 열었다. 간수 홍은 어느 사이 몸을 피하고 없었다.

“오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숙영이가 나를 보고 물었다.

“㉔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렇게 된걸. 자, 우리도 나가자.”

숙영의 말에 어리벙벙해졌던 나는 홀연히 정신을 차렸다. 나는 누이 등을 밀었다.

“앞쪽은 안 돼요. 뒷문 쪽으로, 어서!” 하더니, 숙영이도 결심을 한 듯 어머니 뒤를 따라갔다.

저물한 속에 복도는 벌써 최루탄 내용으로 매캐했다. 바깥들은 매연이 자욱했고 난장판 소요가 계속되고 있었다.

동수 엄마가 침대를 앞에서 당기고, 젊은이들은 침대를 옆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었다. 복도로 나서니 어둑발이 내리는 속에 현구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초조했다. 언뜻 한 가지 결단이 전류처럼 머리를 때렸다. 이제 현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신이 들어앉아 살아 숨 쉴 감옥 한 칸을 짓기 시작했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비로소 현구를 거주제한구역 안에서 운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상징성이 말해주듯, 설령 ㉕ 비산동 사글세발까지 현구를 데려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숨 쉬고 있을 동안만이라도 그를 감시받는 ㉖ 병실이 아닌, 자유로운 구역까지 내보낼 책임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았다. 나는 동수 엄마와 나란히 침대머리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다.

최루탄 내용이 들어찬 복도로, 침대가 좌르르 굴러 갔다. 동수를 업은 어머니와 어머니 뒤통리에 팔을 두른 숙영이는 ㉗ 뒷문을 향해 저만큼 앞장서서 종종걸음을 치고 있었다. 그때, 뒷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지 젊은이 몇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막혔던 통로가 자유로 향한 출구처럼 환하게 뚫렸다. 어머니와 함께 우리 오누이 셋이 그해 겨울 그렇게 남행길을 재촉했듯, 우리들은 마치 포연을 뚫고 진군하듯, 최루탄 매연을 헤쳐 침대를 끌고 발은걸음을 걸었다. 그제서야 사일구 그날, 우리 모두 어깨 견고 경무대를 향해 내닫던 그 벽찬 흥분이 되살아남을 나는 가슴 뿌듯히 느낄 수 있었다.

- 김원일, 「마음의 감옥」 -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25. ㉔~㉗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구의 가족들은 현구의 제안에 따라 현구를 ㉔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다.
- ② 젊은이들은 현구의 가족들이 안전을 위해 ㉕에 계속 머무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동수를 업고 ㉖로 가는 것에 위험을 느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④ 동수 엄마는 ㉖보다 ㉔가 현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숙영이는 현구를 ㉕에서 ㉖로 이동시키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26. ㉔~㉗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현구 어머니의 행위가 불합리함을 질타하며 현구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다.
- ② ㉕: 학생들의 행동이 유발할 부정적 결과를 환기하며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㉖: 동수 엄마의 의견에 동조하며 동수에게 함께 하고 싶은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 ④ ㉗: 동수의 질문에 답변하며 동수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㉘: 숙영이에게 상황의 불가피함을 언급하며 행동에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마음의 감옥」은 이타적 삶을 살아온 동생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린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구속된 동생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저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물은 동생의 삶이 지닌 영향력을 깨닫고,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 ①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현구를 소멸을 받은 자라고 한 것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타적 삶을 산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② 퇴약별 아래에 말없이 앉아 땀에 젖어 있는 학생들을 보고 고행하는 것 같다고 여긴 것에서, 동생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물의 생각을 찾을 수 있군.
- ③ 어둑발이 내리는 속에 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초조해 한 것에서, 건강이 악화된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현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앉아 살아 숨 쉴 감옥 한 칸을 지었다는 것에서, 동생의 삶이 지닌 영향력을 깨닫게 된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⑤ 어깨 견고 경무대를 향해 내닫던 때를 기억하며 벽찬 흥분이 되살아남을 뿌듯하게 느낀 것에서,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인물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헌사한 조화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낙은암 깊은 골을 날 위하여 만드시니  
**봉우리도 뺄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옹이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진세(塵世)를 하직하고 산속에 깃들**이니  
 내 생애 담백한들 내 분수이니 관계하랴  
 농환재 맑은 창가에서 주역(周易)을 점검하니  
 소장진퇴(消長進退)\*는 성인의 밝은 가르침이요  
 낙천지명(樂天知命)\*은 성인의 깊은 경계로다  
 (중략)

주육(酒肉)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 마오  
 여름날 더운 길의 홍진간(紅塵間)에 분주하며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서성**이니  
 자네는 좋다하나 내 보기엔 괴롭구나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삼복에 날 더우면 백우선\* 높이 들고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거동을 그 누가 겨룰소냐  
 동지 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돋워 베고 ㉠ **해 돈도록 잠을 자**니  
 편함도 편할시고 고단함이 있을소냐  
**삼공(三公)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라  
 값을 쳐 비기려면 만금인들 당할손가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를 부러워하며  
 현 배웃 알맞으니 비단 가져 무엇 할꼬

- 남도진, 「낙은별곡」 -

\* 소장진퇴: 세상사가 변화하는 이치를 가리키는 말.  
 \* 낙천지명: 천명을 깨닫아 즐기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름.  
 \* 대루원: 이른 아침에 대궐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 백우선: 새의 흰 깃으로 만든 부채.

(나)

**허천강\* 건너편**에 나날 뵈는 저 **봉화(烽火)야**  
 차차 전하여 **목멱산\***에 닿았나니  
 내 집이 그 아래 있으니 편한 소식 전할소냐 <1수>

**가시울 에운\*** 곳에 고향 멀기 잘 하였데  
 만일 **가깝**던들 **생각이 더**할러니  
 차라리 바라도 못 보니 잊을 날이 있어라 <4수>

백옥 난간 들렀는 데 오색 선화 피었어라  
 옛 신하 모두 모셔 일당어수\* 즐기던고  
 매일에 이런 꿈 꿀적이면 ㉡ **밤낮 자려 하노라** <9수>

**두렷한 밝은 달**이 천지에 가득하여  
 밤이 낮이 되어 어두운 곳 없었는데  
 어디서 **떠가는 구름**은 가리우려 하나니 <11수>

- 윤양래, 「갑극만영」 -

\* 허천강: 개마고원을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강.  
 \* 목멱산: 서울 남산의 옛 이름.  
 \* 가시울 에운: 가시울타리 둘러싼.  
 \* 일당어수: 물고기와 물이 한데 모임. 임금과 신하가 화합함을 이르는 말.

2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이, ㉡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후회가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일상을 만끽하고 있는 여유로움이, ㉡에는 바라는 바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체념이, ㉡에는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에는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에는 경험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30.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 보 기 &gt;

(가)와 (나)에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의 은거를 선택한 작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변방에 유배를 간 작가가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면서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연군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봉우리도 뺄어나고 경치도 뛰어나’ ‘산속에 깃들’었다는 것을 통해 자연에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주인옹이 명리에 뜻이 없어’서 ‘진세를 하직’했다는 것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어 스스로 속세를 떠난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의 <11수>에서 ‘두렷한 밝은 달’을 ‘떠가는 구름’이 가리려 한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가)에서 ‘대루원에 서성’하는 사람에게 ‘내 신세’를 이르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의 <1수>에서 ‘허천강 건너편’의 ‘봉화’를 보며 ‘목멱산’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작가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가)에서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겠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편안한 삶에 대한 작가의 만족감을, (나)의 <4수>에서 ‘가시울 에운 곳’에서 고향이 ‘가깝’다면 ‘생각이 더’했으리라는 것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작가의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녹운은 위연청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실망하고 놀랐다. 위연청이 물러가고 위지덕이 나간 사이에 녹운이 왕소삼을 꾸짖었다. “너는 어찌 허황된 말로 나를 속이는가? 네가 그 집에 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위연청이 편안히 돌아오고 강도감이 나왔다니 이는 또 무슨 일인가?”

왕소삼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니 위연청이 강도감 집에서 귀신을 쫓아 살리고, 상량문을 지어 모든 선비들을 압도한 후 천금도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다. 원래 상공자와 여러 사람들이 경화관에 가서 위연청을 찾다가 순무사가 오는 바람에 성 안이 복잡하여 그만두었다. 왕소삼이 자세히 듣고 돌아와 급히 전하니 녹운이 크게 놀라고 기회를 보아 위지덕에게 말하였다. “위연청이 평산당 상량문을 짓고, 천금의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색하지 않고 또, 보여 주지도 않으니 이것이 자식 된 도리입니까?”

위지덕이 천금이라는 두 마디에 눈에 불이 일어 급히 위연청을 불렀다.

“들으니 네가 무슨 글을 짓고 천금을 얻었다고 하는구나.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이자를 쳐서 없애지지 않게 하라.”

위연청이 알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미 들었음을 알고 녹운의 ㉠ 참소임을 깨달았다. 이에 큰 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불행히 생각하나 어찌 알고 묻는 일을 숨기겠는가? 편안히 답하였다. “실제로 제가 강도감을 문병한 후 돌아오는 길에 평산당 낙성연을 구경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상량문을 조르는 바람에 급히 글을 써 주니 천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글을 짓더라도 값을 받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게다가 여러 선비들이 시기 하기에 거절하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지덕이 미처 말하기도 전에 녹운이 냉소하며 말하였다.

“글을 지어 주고 받는 사례는 왕발과 사마상여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대가 비록 청렴하다고 해도 어찌 물리쳤겠소? 이는 감추었다가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리라.”

위지덕이 크게 노하자 위연청이 엄숙히 정색하며 말하였다.

“서모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여 체면을 차리지 않으시는군요. 내 비록 못났으나 재물을 개인적으로 축적하여 아버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서모의 소임이 이런 일까지 참견하는 것이 아님을 어찌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운이 크게 비참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위지덕의 도움을 받고자 말하였다.

㉡ 청이 우연히 말을 하였다가 이런 편찬을 받으니 이는 모두 영감님이 너그러운 탓입니다.”

위연청이 어이가 없어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위지덕은 녹운의 거동을 보고는 위연청이 재물을 감추어 놓고는 녹운에게 역정을 내어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상을 밀치며 크게 욕하였다.

“나쁜 놈이 갈수록 못 되어, 천금을 감추고 청렴한 척하며 서모를 질책하고 아비에게 역정을 내니 이것이 자식 된 도리냐?”

위연청이 당 아래로 내려가 죄를 청하며 말하였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제가 몸에 새기지 못하였으니 감히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재물을 숨기고 아버님을 속이는 것은 금수나 할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불초무상하오나 그런 것은 차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는 것을 거절한 죄를 청합니다.”

위지덕이 더욱 화를 내었다.

“받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는 것을 사양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다.”

**[중략 줄거리]** 녹운은 재산을 도둑질해 도망가고, 위지덕은 중병에 걸리지만 위연청의 노력으로 병이 낫자 이를 계기로 개과천신한다. 이후 마을에 화재가 일어나고 위연청은 양주 자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사가 크게 놀라고 기뻐하나 한편으로는 의심하여 유한을 불러 물었다.

“이것은 위연청의 뜻일 것이다. 정말로 위지덕이 쓴 것이냐?”

유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위연청 어른은 친척을 찾아 수일 전에 나가 오늘 밤에나 오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큰 어른께서 스스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곡식 등을 옮기고자 명령을 기다리옵니다. 저희 집에서 직접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예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큰 어른께서는 관청의 쓰임에 보태어 천자께서 백성의 환란을 살피시는 근심을 덜고 자사 어른께서 환란 때문에 잠자리를 잊고 음식을 끊으시는 염려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 관청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양주 자사가 탄복하며 말했다.

㉢ 위지덕의 여진 마음과 재주를 본받아 위연청이 낮음을 깨달았다. 과거 더럽게 재물을 모은 것은 원래 이런 큰 계책이 있기 때문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위지덕을 헐뜯는 말은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조개를 던져 바다를 측량함과 같구나.”

이에 친히 경화관으로 가 많은 백성을 불러 위지덕의 은덕을 말해 주었다. 유한 형제가 그 형세의 궁박함과 식구의 다소를 따져 나누어 주니 각 집마다 은자 오십 냥이요, 미곡이 십여 석이요, 비단이 두어 필이라. 이만하면 급한 밀천으로는 넉넉한지라. 백성이 기뻐하며 손을 모아 은혜에 감사하며 물러가 집을 수리하고 주위와 배고픔을 구하니 그 선을 쌓음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 일은 위연청이 화제를 보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린 것이었다. 위지덕은 복을 받아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물을 아끼지 않을 때는 목숨처럼 아끼더니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는 재물을 지푸라기같이 여겨 쾌활하니 얼마다 듣고 따라 털끝만큼도 늦춤이 없었다. 위연청이 여러 창고를 점검하니 보물은 녹운이 태반이나 도둑질해 갔으니 남은 금은과 비단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양주 관아 창고가 어찌 미치겠는가. 위지덕 창고의 재산이 산과 같으니 오로지 다 다른 사람의 피와 기쁨을 굶어 거둔 것이었다. 위연청이 재물 보기를 원수같이 하여 옛날 출납을 확인하고 문서를 회계할 때에도 눈길만 주고는 마음에 두지 않아 많고 적음을 모르더니 이날 자세히 헤아리니 탄식이 나왔다. 하나하나 어른께 여쭙었으나 위지덕은 조금도 애석해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 하니 가히 무궁한 복을 받을 만하였고 종래의 죄과를 씻을 만하였다. 위연청이 명을 받고는 유한 형제를 불러 자사를 찾아가 부탁할 일을 일일이 가르치고 편지를 대필한 후 잠깐 다른 고을로 가니 이는 아버지께서 한 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유한이 어찌 그르침이 있으리오.

- 작자 미상, 「보은기우록」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이 지닌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녹운이 ㉠을 하기 전에 왕소삼에게 묻는 말에서, 위연청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왕소삼을 질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위연청이 ㉠이 있었음을 깨달은 뒤에 한 생각에서, ㉠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위연청이 ㉠을 들은 위지덕에게 한 말에서, ㉠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녹운이 ㉠을 하고 난 후 위연청에게 한 말에서, 위연청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위연청이 ㉠과 관련하여 녹운에게 한 말에서, 녹운의 언행이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상대의 역할을 언급하며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에서는 인물이 이전에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의 지위를 제시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반박하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에서는 인물에 대해 생각한 점을 밝히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상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나타내고 있고, ㉡에서는 인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고, ㉡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근거로 인물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보은기우록」에는 재화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의 축적만을 도모하는 인물과 공동체 속에서 윤리적 삶을 실천하며 효를 중시하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된다. 또한, 이 작품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재화가 도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 ① 위지덕이 위연청에게 천금을 허비하지 말고 이자를 치라고 말하는 것에서 부를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위지덕이 천금을 거절한 위연청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거역한다고 화를 내는 것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재화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위연청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려 창고의 재산을 관청으로 보내 쓰이게 한 것에서 공동체를 위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위지덕이 재물을 아낄 때 목숨과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에서 재화가 도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위연청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양주 자사에게 보낸 것에서 선행의 공을 아버지에게 돌려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 제 1 교시

13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맛’이라는 형태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맛이[마시]’, 비음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는 ‘맛도[만또]’, 비음 앞에서는 ‘맛만[만만]’과 같이 실현되어 각각 ‘맛’, ‘만’, ‘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형태소의 교체라고 하며, 교체에 의해 달리 실현된 형태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맛’, ‘만’, ‘만’과 같은 이형태들이 분포하는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데 이러한 분포를 상보적 분포라고 한다.

이형태 교체의 양상은 교체의 동기가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교체는, 말소리가 실현될 때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소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약이나,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는 음소들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약 등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체는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자동적 교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있다[인:따]’와 ‘잇는[인:는]’을 보면, 어간 ‘잇-’이 각각 ‘인-’과 ‘인-’이라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는 종성에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만 올 수 있다는 음운론적 제약과 비음 앞에 ‘ㄱ, ㄴ, ㅂ’과 같은 평파열음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반면에 ‘(신발을) 신고[신:꼬]’에서 어미 ‘-고’가 ‘ㄴ’ 뒤에서 ‘-꼬’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이는 ‘산과[산과] (바다)’에서 ‘ㄴ’ 뒤에 ‘ㄱ’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 ‘ㄴ’ 뒤에 ‘ㄱ’이 연속해서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미 ‘-고’가 ‘ㄴ’ 뒤에서 ‘-꼬’로 실현되는 것은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한, 이형태 교체의 양상은 교체를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앞서 보았던 ‘(신발을) 신고[신:꼬]’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담지[담:찌]’에서도 어미가 이형태로 교체되는데, 이들은 ‘ㄴ, ㅁ’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라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반면에 ‘(점을) 이어[이어]’에서 어간 ‘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 ‘ㅅ’이 탈락하여 ‘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몇’은 ‘몇이[며지]’, ‘몇도[면또]’, ‘몇만[면만]’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이형태들로 실현되었다.
- ② ‘(얼굴이) 부어[부어]’에서 어간 ‘붓-’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에 따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형태로 실현되었다.
- ③ ‘숲과[습파]’, ‘숲조차[습조차]’에서 ‘숲’은 각기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하지만 서로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 ④ ‘(날씨가) 궂다[굳따]’에서 어간 ‘궂-’이 ‘굳-’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된 것은 종성에 ‘ㄷ’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 ⑤ ‘(글씨를) 적느라고[정느라고]’에서 어간 ‘적-’이 ‘정-’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된 것은 비음 앞에 ‘ㄱ’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36.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활용하여 이형태 교체의 양상을 이해할 때,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동적 교체에 해당하는가?	규칙적 교체에 해당하는가?	
○	○	... ㉠
○	×	... ㉡
×	○	... ㉢
×	×	... ㉤

- ① ㉠: 마음씨가 고우니[고우니] 눈길이 간다.
- ② ㉡: 타인의 마음을 짚는[집는] 것은 쉽지 않다.
- ③ ㉢: 꾸중을 들어서[드러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 ④ ㉣: 두 눈을 지그시 감자[감짜] 잠이 쏟아졌다.
- ⑤ ㉤: 나는 고구마를 땅에 묻고[묻꼬] 흙을 다졌다.

37. &lt;보기&gt;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오늘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서 특수 어휘로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검토문에 대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 안긴문장 내에서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 ① 나는 친척 어른께 안부를 여쭙기가 쑥스러웠다.
- ②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뵈 은사님과 저녁을 잡수셨다.
- ③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서 앞마당에 감나무를 심으셨다.
- ④ 머리가 하얗게 세신 할아버지께서 멋진 옷을 입으셨다.
- ⑤ 어머니는 삼촌이 편하게 쉬시도록 침구를 바꿔 드셨다.

38.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예은, 세욱, 나라가 만나서 조별 과제를 하는 상황]

예은: 나라야, 괜찮아? 많이 피곤하니?

나라: ㉠ 어제 밤을 새웠더니 나도 모르게 졸았나 봐.

세욱: 그래? 조사할 자료가 많았구나. ㉡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할걸.

나라: 그게 아니라 나는 ㉢ 오늘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가 더 있어서 ㉣ 그거 준비하다가 못 잤어.

예은: 그랬구나. ㉤ 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 지금 들어갈래?

나라: 괜찮아. 오늘은 자료 정리만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어.

세욱: 아니야. 거의 다 했는걸. 예은이랑 내가 ㉦ 이거 마무리할게. 끝나고 연락할 테니까 ㉧ 너는 집에서 쉬고 있어.

나라: 정말 괜찮겠어?

예은: 당연하지. ㉨ 우리만 믿어.

- ① ㉠은 ㉢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정해진단다.  
 ② ㉡이 지시하는 대상은 ㉤이 지시하는 대상과 같다.  
 ③ ㉢이 지시하는 대상은 ㉤이 지시하는 대상과 다르다.  
 ④ ㉤이 가리키는 시간은 ㉦을 기준으로 정해진단다.  
 ⑤ ㉨이 지시하는 대상은 ㉤이 지시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39. <보기>는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미헛 새 놀에 <u>브르느다</u> [들의 새가 노래를 부른다] ○하늬 童男이 <u>잇느이다</u> [하늘의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	○도즈기 <u>알폴</u> [도적의 앞을] ○암톨기 <u>아츠민</u> 우리 [암탐이 아침에 울어]
㉢	○ <u>넝크</u> 를 救히시고 [임금을 구하시고] ○ <u>種種</u> 엿 도흔 <u>오슬</u> 어드며 [종종 좋은 옷을 얻으며]
㉣	○반드기 모메 <u>잇느너</u> [마땅히 몸에 있느냐?] ○ <u>究羅帝</u> 이제 어디 <u>잇느노</u> [구라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
㉤	○ <u>盲龍</u> 이 눈 <u>쁘고</u> [눈 먼 용이 눈을 뜨고] ○ <u>뽕그티</u> 돌오 비치 <u>히더니</u> [꿀같이 달고 빛이 희더니]

- ① ㉠을 통해, 선어말 어미 ‘-이-’가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② ㉡을 통해, ‘이’가 관형격 조사와 주격 조사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③ ㉢을 통해,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군.  
 ④ ㉣을 통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군.  
 ⑤ ㉤을 통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군.

[40 ~ 43] 다음은 ‘밀랍 랩 만들기’ 활동에 대한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강의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고 학생회장 박성원입니다. ㉠ 오늘 강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사전에 동의하신 대로 녹화됩니다.

채팅

진행자님이 녹화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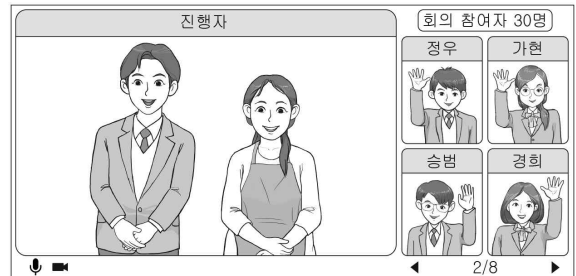
진행자: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고 환경 보호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의 활동은 ‘밀랍 랩 만들기’입니다. 환경 운동가 유혜연 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 활동은 밀랍 랩 만들기인데요. 밀랍 랩은 밀랍을 천에 입힌 것으로,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친환경 랩입니다. 밀랍은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로 방수제, 광택제 등으로 쓰이는데 항균 효과도 있다고 해요. 비닐로 만든 랩보다 빠르게 분해되며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비닐 랩과 같이 음식을 보관할 수 있으면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그럼 밀랍 랩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이 강의를 보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미리 안내해 드렸는데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강사님, 다시 한번 준비물을 말씀해 주세요.

강사: 네. 밀랍, 면으로 된 천,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집게입니다.

진행자: 시작해도 될까요? 준비가 다 되면 손을 들어 주세요.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릴게요.



진행자: 모두 준비가 되셨네요. 불을 사용할 때에는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강사님, 시작할까요?

강사: 우선 예열된 프라이팬에 밀랍을 넣어 주세요. 밀랍은 62 ~ 65도에서 녹기 때문에 밀랍을 약한 불에서 녹이면서 프라이팬에 골고루 퍼지게 해 주세요.

진행자: 버터를 녹이는 것과 비슷하네요.

강사: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녹은 밀랍에 천을 담가 밀랍이 천에 고루 잘 스며들게 해 주세요.

진행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강사: 그런 다음 집게로 이렇게 천을 들어 상온에서 몇 번 흔들어 식혀 주면 밀랍 랩이 완성됩니다.

진행자: 벌써 완성이 된 건가요? ㉡ 랩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만져 보니 좀 뻣뻣하네요.

강사: 실은 상태에서는 뻣뻣하지만 손으로 만지면 체온으로 인해 부드러워져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접착력도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으로 공유해 주시겠어요?

## 채팅

진행자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진행자님이 공유 중인 화면입니다.]



제가 써 본 밀랍 랩 사진이에요. 뚜껑 대용으로 사용하니 과일이 신선하게 보관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좋네요. 밀랍 랩 사용으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 밀랍 랩을 만드는 방법은 아래를 클릭!  
<https://www.△△△.com/eco>

#밀랍랩 #쓰레기줄이기 #환경보호

👍 좋아요
➡ 게시물 공유

82명이 좋아합니다

**강사:** 제시된 자료 화면은 ㉔ 밀랍 랩 활용 사례를 담은 SNS 게시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밀랍 랩을 병뚜껑 대용으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소나 과일, 샌드위치 등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활용하는 거군요. 지금까지 밀랍 랩을 만들어 보고, 밀랍 랩의 활용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세요.

**승범:** 강사님, 밀랍 랩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강사:** 네. 뜨거운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㉕ 뜨거우면 밀랍이 녹을 수도 있겠네요.

**강사:** 그렇죠. 그리고 밀랍은 국가 기관에서 식품 첨가물로 분류할 정도로 인체에 대체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밀랍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행자:** 주의할 사항이 조금 있군요.

**강사:** 하지만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저도 강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늘 강의는 ㉗ 우리 학교 누리집 학생회 게시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아요' 기능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여 밀랍 랩의 실제 사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③ '게시물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하이퍼링크로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여 밀랍 랩 활용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⑤ 특정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42. ㉑~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동의한 바와 같이 강의가 녹화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② ㉑: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기보다 행위의 대상인 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㉒: 연결 어미 '-는데'를 사용하여, 밀랍 랩을 만진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그와 관련되는 생각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 ④ ㉒: 보조 용언 '보다'를 사용하여, 밀랍 랩을 만진 것이 시험 삼아 한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㉓: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밀랍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3. 다음은 위 강의를 시청한 학생들이 ㉔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회 게시판

← → ↻ 🔒

**학생 1:** 국가 기관을 언급하며 밀랍의 안전성을 설명해 주셔서 강사님이 알려 주신 정보에 믿음이 갔어. 그리고 밀랍 랩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좋았어.

**학생 2:** 강사님이 방수제로 쓰이는 밀랍의 용도를 알려 주셔서 밀랍 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니 나도 한번 밀랍 랩을 써 봐야겠어.

**학생 3:** 온도를 고려해야 하니 밀랍 랩은 쓰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밀랍 랩을 활용하는 것은 강사님의 말씀대로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40. 위 강의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강사는 강의 중에 학생의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진행자는 강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 ③ 시각 자료와 음성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사는 공유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화면으로 참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행자는 화면을 통해 학생의 상황을 점검하며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이 가능하므로, 진행자는 각기 다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강의 중에 서로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44 ~ 45] (가)는 모바일 앱 개발 동아리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고 습관 관리 앱'의 챗봇 상담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⑦ ... 회성 님이 시윤 님, 지혁 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습관 관리 앱에 대해 논의하려고 초대했어. 앱 다운로드 수가 벌써 500회를 넘었더라고.

시윤 응. 뿌듯하더라. 그런데 개선해야 할 점도 있더라고. 그래서 앱 사용자의 불만 사항을 캡처했어. 한번 봐 봐!

구름	채팅 상담 운영 시간이 짧아요. .... ㉠
별빛	질문을 해도 답변이 너무 늦어요. .... ㉡
사랑	앱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공지 사항을 못 찾겠어요. .... ㉢
마음	흔히 하는 질문도 매번 채팅 창에 입력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 ㉣
노을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관심 있는 정보만 따로 모아 보여 주면 좋겠어요. .... ㉤

채팅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만 상담을 운영하니까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아.

지혁 챗봇 상담을 하면 어때?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직접 해 온 채팅 상담을 인공지능이 대신 하는 거야.

시윤 아, 채팅 로봇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지? 챗봇을 이용하면 우리 앱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채팅 상담 운영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는데 챗봇을 이용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잖아.

지혁에게 답장

⑧ ... 챗봇 상담을 하면 어때?

답변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도 있는데 챗봇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어.

지혁 앱 화면이 복잡해서 메뉴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니 챗봇을 만들 때 공지 사항처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는 눈에 잘 띄게 배치하자.

시윤 좋아.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을 채팅 창에 입력하기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같이 띄우자.

그것도 좋겠어.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만 모아 보여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 챗봇 상담할 때 사용자에게 따른 맞춤형 정보를 함께 제공하자.

지혁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한번 챗봇을 만들어 보자!

... ㉥

그래.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보자. 일정 공지할게.

㉦ ... 회성 님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2024. 5. xx. 17시

(나)

○○고 습관 관리 앱 챗봇 상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 ○○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원하는 메뉴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오후 10:10

내 습관 관리 공지 사항 인기 검색어 자주 찾는 질문

오후 10:10 적립된 포인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적립된 포인트는 [내 습관 관리]의 [포인트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오후 10:10

포인트 조회

오후 10:10 포인트 조회

△△△ 님의 포인트는 5,200점입니다. 오후 10:10

오후 10:11 내 포인트 순위를 알고 싶어요.

△△△ 님의 순위는 13위입니다.

포인트에 관심이 많은 △△△ 님을 위한 맞춤형 정보 오후 10:11

포인트 적립 내역 포인트 사용

여기에 궁금한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전송

4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친구 초대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 화제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앞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 특정 대상에 대한 답장 기능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논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공지 기능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45.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 대한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② ㉡에 대한 '회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을 올린 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③ ㉢에 대한 '지혁'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지 사항'과 같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상담 시작 부분에 뜨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④ ㉣에 대한 '시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기 검색어', '자주 찾는 질문' 메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⑤ ㉤에 대한 '회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인트 적립 내역'과 같이 관심사 이외의 정보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챗봇을 만든 것이겠군.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